

강기정 광주시장 “버팀목·디딤돌 역할로 기회도시 여정 속도”

2023년 예산안 관련 시의회 시정연설
총 7조2천535억 원 규모 예산안 편성

강기정 광주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무엇을 반드시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원칙과 기준을 깊이 고민했다”며 “위기 경제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이자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2천535억원으로, 이는 2022년 본예산(7조94억원)보다 3.5%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 예산’으로 7천891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정부가 삭감 또는 축소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상생카드 예산(769억원)을 편성하고,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부예산 감소분(93.5억원)을 시비로 추가 반영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정부가 삭감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원칙에 맞게 주체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 지원도 3%로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빚고을론·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을 내년에 신규 지원하는 안정망 예산도 32억원 반영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노관우산공제 등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3고 시대’를 버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특히 이번 가뭄을 향후 기후위기 대비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기회로 삼고자 온실가스감축 인지에 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대응도시 조성(31억원) 등 622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성장과 활력, 돌봄을 중심으로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 예산’으로 2조3천333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에 1천731억원을 편성했다.

AI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과의 융합, 반도체 산업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창업과 기술실증 도전 지원에 적극적으로

로 투자한다. AI 집적단지 조성(170억원)과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15억원), 반도체산업육성 및 지원(192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역량 강화(7억원), 수평적 전기차 사업 생태계 조성 사업(6억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창업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30억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95억원) 등에 636억원을 지원한다.

시민이 ‘활력’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천81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복합쇼핑몰을 시작으로 광주에 새로운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프라와 스토리를 구축해 ‘도시이용 인구 3천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장축제, 버스커즈 월드컵 등 지역 대표축제 육성(20억원)과 빛의 로드 도심 심야관광 활성화(35억원)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73억원,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도 109억원을 지원한다.

작지만 청년의 미래를 위한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예산(2억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28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새로운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 될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 예산(0.3억원)도 반영했다.

끝으로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을 위해 1조8천456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민선 8기 광주를 대표하는 복지 브랜드로 키워 돌봄 걱정 없는 광주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내년 4월부터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의 신청만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예산 78억원 반영했다.

체계적인 농민수당 지급 준비(1.5억원)를 시작으로 3대 공익가치수당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05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도 271억원을 편성하는 등 생애주기별

충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돌봄도시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와 시의회는 ‘광주시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두 바퀴’라며 ‘시의회와 시가 개혁의 동반자’로서 큰 경제위기를 넘어 활력과 역동이 넘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이유빈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가뭄피해 선조치 후보고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8일 2차 가뭄대책 상황보고회에서 가뭄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 맞춤형 단계별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지역 ‘선조치 후보고’로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올 들어 24일 현재까지 전남지역 강수량이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악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1일 긴급 가뭄대책회의를 개최해 전남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전남 가뭄대책 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단기적 가뭄 극복 방안으로 도서지역 급수선 배치, 상수원 물 채우기, 퇴적도 준설을 통한 용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선조치 후보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뭄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용수확보 대응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서지역 독거노인 병방 지원, 도 물관리부와 관련 실국 협력, 가뭄대책 단기사업 즉시 추진, 물 사용량 절감이 중요하므로 물 절약 홍보 등에 적극 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자”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

체와 협력 가용 홍보 매체 및 행정인력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온-오프라인 물 절약 홍보활동(누리소통망(SNS), 현장캠페인,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가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물 절약 실천을 적극 호소할 방침이다.

가뭄피해가 극심한 완도군의 경우 급수대책으로 급수차 운행, 병물 공급, 대형 관정 개발, 해수담수

화시설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함께 추진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겨울철 갈수기 동안 가뭄이 지속될 전망으로, 근본적으로 물 사용량 절감이 가장 중요한 만큼, 도민들께선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전남도에서는 가뭄지역에 대한 선제적 급수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